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언제?

-내년에도 5급 공채보다 먼저 시행...2월 24일 '유력'

-국회 8급 공채 1차, 4월 20일 또는 27일 시행 예상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2023년도 공채 일정
이 완료되면서 2024년 국회 공채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제40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의 2024년
도 일정이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내년에 입법고시가 5급 공채보다 먼
저 시행될지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입법고시와 5급 공채 수험생의 중복이 많기
때문에, 입법고시 일정에 따라 지원자 수와 응
시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입법고시가 5급
공채보다 앞서 시행될 경우, 입법고시의 지원
자와 응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2월 25일에 치러진 2023년 제
39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에서 지원자와 응시
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응시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입법고시 지원자는 전년
보다 3.8% 증가에 그쳤지만, 실제 응시자 수
는 전년보다 무려 27.2%나 증가했다.

또한 응시율도 평균 75.9%로, 지난해
62.0%에 비해 13.9%포인트나 증가했다. 이
는 최근 몇 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0.0%)의 응시율보
다도 높은 수치다. 결과적으로, 5급 공채보다
먼저 시행한 것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
왔다.

이러한 현상은 입법고시와 5급 공채를 동시
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입법고시 응시가
필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
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역시 입법고시 응
시생들을 위해 일정을 2월 24일 토요일에서
25일 일요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제40회 입법고시 역시 올
해와 유사한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
인다. 만약 내년 입법고시 제1차시험이 2월
24일로 확정된다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
자,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제1차시험은 올해
처럼 3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입법고시 제1차시험 일정이 2월
24일로 확정된다면, 원서접수 기간도 올해와

비슷하게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예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정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큰 혼란 없이 계획대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8급 공채 필기시험 일정 역시 주목받고 있다. 올해 8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 22일에 치러졌다. 내년 시험 일정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즉 4월 10일의 선거일이 변수다.

이에 따라, 내년 8급 공채 필기시험은 올해와 유사한 시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지만, 총선 이후로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8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 20일 혹은 27일에 시행될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2025년부터 국회 8급 공채에는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에 대한 시험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또 8급 공채에 한국사 과목(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을 도입하여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고, 수험생의 시험 응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 시험의 대체 인정 기간은 입법고시와 같은 5년이다.

또한, 현재 필기와 면접의 2단계 과정이 제1차 시험(PSAT, 영어, 한국사), 제2차 시험(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제3차 시험(면접)의 3단계로 변경된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듬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회사무처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고 공직적격성평가에 해당하는 언어논리 영역·자료해석 영역·상황판단 영역은 과목별 20문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는 현행대로 과목별 25문항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저작권자/법률저널)